

# 객사길 걷기 좋은 거리 되나?

### 전주시, 행안부 보행환경 조성 공모 선정 국비 10억 확보 2020년까지 사업 추진 양방향도로를 일방통행으로 개선

이색적인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면서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객사길(일명 객리단길)이 차없는 도로,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된 길로 바뀐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동 객사1길과 객사2길, 객사3길의 8개 노선 2.8km구간에 국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객사길은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불법주차차량 차양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걷기도 불편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주객사길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고, 편리한 차량통행 위해 중앙동 객사, 2, 3길의 기존 양방향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는 개선사업을 한다. 시는 이날 중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

진해,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부터는 는 실시 설계를 거쳐 보행환경 개선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관할 안전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도 마쳤다.

김종업 시 생태도시국장은 "일방통행 시행 초기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기간 동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한 이번 객사길 개선사업에 주민과 상인,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벤처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와 협약

전주시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농업 선진화와 과학영농 관련 산업체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6일 사단법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와 지역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과학영농 관련 산업체의 육성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벤처협의회의 기업육성 역량

과 오랜 경험이 축적된 전주 금속소공인의 설계·가공 기술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현장 밀착 장비 개발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양 기관은 지난해 소공인 공동연구회에서 진행된 미니리세척기 개발시 농업기술센터의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것을 모델로 삼아 올해도 판매를 우선 고려한 제품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

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동사업 발발 △농가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 △맞춤형 교육훈련 등 양 기관의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약속한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와 소공인의 실질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전주금속가공소공인센터는 지역 내 금속가공 소공인 148여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컨설팅, 환경개선, 기술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143 익스트림 타워 복합개발 특혜시비 대책 마련

### 자광 전은수 대표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재전협의회 초청특강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 충족하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원"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한 (주)자광이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에 따른 특혜시비와 난개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밝히고 동반성장을 제안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주)자광의 전은수 대표는 5일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670지구 2018-2019년도 재전 협의회'에 외부강사로 초빙돼 '전주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기여하고 봉사를 넓혀 나갈 수 있는 동반성장 계기로 만들자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전 대표는 전

주대학교 행정학과와 특별강사로 초빙돼 전주의 미래와 143익스트림 타워 복합개발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전 대표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 이익금을 선제적으로 공사착공 시 공적하고 투명하게 환원해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용등급이 우수한 시공사를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전주시가 인허가를 완료하는 시점에 동시착공, 동시준공을 보장하는 책임준공 계약을 제공한다.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아울러, 타워복합개발로 발생하는 교통개선대책, 환경성검토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각종 심의, 평가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대표는 강연에서 "이 사업은 침체된 전북경제와 최근 국가적으로 초우의 관심이 집중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비경제의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전주의 미래이며 글로벌 문화 관광도시, 세계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위하는 공단 만들 것"

### 조병우 신임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취임, 공식업무 시작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5대 경영본부장으로 조병우 상임이사(60·사진)가 6일 취임했다.

조 신임 본부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부장단과 티타임을 가진 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등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공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 전주시와 함께하는 공단으로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 고객을 위해 시정의 최일선에 서게 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단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 신임 본부장은 1983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해 퇴임하기까지 34년 5개월 간 전주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효자동장,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등을 지냈다. /송효철 기자



특히, "시민과 고객을 위해 시정의 최일선에 서게 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단이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조 신임 본부장은 1983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지난해 퇴임하기까지 34년 5개월 간 전주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효자동장,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등을 지냈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로 뿌연 전주의 하늘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천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길을 지나고 있다.

## 정읍의 문화자치 실현

### 전북문화관광재단, 오늘 풀뿌리문화정책 간담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오는 7일 오후 3시 정읍시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정읍의 문화자치 실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제2차 풀뿌리문화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읍의 문화자치 실현"을 주제로 재단이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정읍시 문화행정과 담당자를 비롯해 정읍을 무대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단체장 및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재단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정읍시 문화예술계 현황 공유 및 현안 도출, 정읍시 문화비전 선포의 필요성 제기, 정읍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지난 8월 발족한 '도민문화정책발굴단의 정읍 문화예술정책 2030 수립방안 활동결과'와 이 지역에 산재한 문화예술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및 사업 발굴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풀뿌리문화정책간담회'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매달 1회씩 관계자들이 모여 문화예술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다양한 문화정책을 만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정책기획팀(063-230-7422)을 통해 알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 개최

전주시는 6일 시청회의실에서 효율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구성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전주시 부시장, 시의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8년도 전주시 재난관리 성과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자연·사회 재난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과 역

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재난과 안전관리 위원회 및 취약시설 모니터링·재보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재난 발생 시에는 인·물적 자원 동원과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협력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은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로 재난관리 역량과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본 위원회를 통해 민관이 함께 시민이 안전한 전주 만들기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휘트니스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팀기 및 우승	레부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팀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니스	